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천지은* · 김민곤** · 박정민*** · 이용규****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창조인재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을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도시유형, 이주유형, 가족유형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하여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한 어메니티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조인재가 속한 도시유형이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비광역시에서 더욱 두드러져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서도 창조인재의 이주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라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인재가 처한 상황과 특성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시로 동반이주한 경우가 비동반이주한 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어, 이는 광역시가 가족 동반이주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비동반이주 집단의 경우 불충분한 어메니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광역시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 역시 동반이주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유형별 IPA에 따른 우선시정영역으로 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비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자녀교육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창조인재, 어메니티, 지역착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 공동저자,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I. 서론

한국은 과거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 국토의 인적·물적 자본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약된 데 기인하는 여러 사회 문제에 봉착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도권의 편중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간 국토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및 행정복합도시 설립정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등이 있다(남기범, 2006). 이 일련의 정책들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물적 자본의 수도권 집약을 국가의 개입과 조정을 통해 분배하여 왜곡된 국토공간을 시정하고 지역의 자생력 형성에 조력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적 자본 뿐 아니라 그 분야에 관련한 전문 인력들이 지방에 배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때 주목할 점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닌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른바 창조인재(Creative Class)¹⁾들의 이동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김윤서·김종진, 2016; 이보영, 2011).

창조인재는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소지가 높은 중요한 인적자본이다(주미진, 2017). 특히 내생적 성장이론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들이 갖는 전문지식 및 기술이 내포한 창의성과 혁신은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지역 및 도시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은 단순히 인구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인구의 질적 측면, 즉 창조인재의 유입과 지속 거주를 위한 환경 전반의 개선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주미진·서원석, 2017; 오은주, 2015).

결국 창조인재의 국토 재분배를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들은 국가 전체적 측면과 지방자치단체 입장 모두에게 당위성을 가진다.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는 수도권 특정 지역이 창조인재를 블랙홀 처럼 흡수하는 현 상태가 지속될 시 이러한 인적자원의 불균형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수도권 과밀화가 환경, 교통, 주택 등 다양한 측면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도 적정 수준의 인프라 분산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및 인구의 성장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창조인재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와 인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일련의 정책들이 성공해야 하는 필요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와는 별개로, 이 정책들이 기대한대로 시행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

1) 국내 연구들에서는 같은 개념을 두고 창조인재, 창조계급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주미진, 2017; 오은주, 2015).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인재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창조인재를 채택한다.

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들이 부득이 가족들과 거주지를 동반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이전하여 주말부부 및 기러기가족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작용을 겪게 되거나²⁾, 인구의 불완전 이주로 인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나, 가장 큰 원인은 종사자들로 대표되는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거주지와 이질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강병수, 2014; 천지은, 20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국토연구원, 2015; 이종수, 2008).

특히 인구의 불완전 이주로 인한 문제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상당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창조인재 당사자 1인의 이주와 가족동반 이주가 각각 그 지역에서 미치는 경제유발효과의 산술적 차이가 첫 번째 이유이다. 국토연구원(2015)에 따르면, 전 가족이 동반 이주하는 경우 종사자 1인당 지역 내 소비지출액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0%p 높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창조인재의 실질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그들의 유입이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조인재들 간 지속적인 입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와 교류의 장을 통해 창의가 확대되기 때문이다(오은주, 2015).

즉, 창조인재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인적 인프라가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창조인재를 포함한 가족동반 이주(완전 이주를 전제한 지역착근³⁾)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조인재가 가족동반 이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여건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하자면 혁신도시의 성공은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창조인재의 유인과 정착을 가능케 하는 요건을 얼마나 잘 조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조인재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노동자 분류 측면에서 인재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그들의 선호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주로 경제적 요인에 따른 어메니티⁴⁾ 욕구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천적 함의로 도출하는 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창조인재에 대한 연구 수 자체가 적

2) 본래 기러기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일부의 거주가 국가 수준으로 다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였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가족을 두고 이전지역으로 홀로 이주한 종사자와 그 가족을 지칭하는 형태로 확산되었다. 이 경우,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종사자는 정서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엄명용, 2002).

3) '착근'에 관하여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나, 여기서는 지역에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뿌리내림'을 의미한다. 가족을 동반한 완전이주가 지역착근과 동의어는 될 수 없으나,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감안하였을 때 지역착근의 충분조건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4) 어메니티(amenities)는 '생활환경에서 있어야 할 것이 적절하게 제공됨에 따라 느껴지는 총체적 쾌적감'을 말하며, 또는 '이를 불러일으키는 입지 및 시설, 환경, 지역 내 공동체 관계 및 분위기 등'을 의미한다(천지은, 2017). II 장 참조.

고, 창조인재를 유인하는 정책적 개선사항의 우선순위에 관심을 두는 연구는 특히 부족하다. 또한 창조인재를 규정한 다수의 초기연구들에서 어메니티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노동자의 특성을 구별하는 측면으로서의 분류에 주로 집중하여 도입된 경우가 많아 어메니티를 형성하고 영향을 받는 창조인재 그룹 내의 독특한 차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대상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종합선물식 정책시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조인재가 느끼는 분야별 어메니티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여러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이들이 어떤 개선욕구를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창조인재의 선호와 욕구를 분석하고, 이들의 지역 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전략에 우선순위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인식에 대한 학술적 논의 증진에 기여하고, 정책의 개선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창조인재가 입지한 혁신도시의 환경을 한국적 맥락에 맞는 기준으로 재분류한 다측면 어메니티로 구성하고, 그들의 인식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점, 도시유형·이주유형·가족유형 등 기존의 어메니티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기준에 의해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1. 창조인재와 혁신도시

창조인재는 인적자원 중 노동자들의 구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분류로서, 창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Florida, 2002).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정확히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창조인재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전통적으로 '아이디어 생성 및 응용이 전제된 기획·전략에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파악해왔다(Reich, 1992; Ehrenreich & Ehrenreich, 1979). 하지만 현대사회로 올수록 산업분류군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정의로는 창조인재가 어떤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Florida(2002)는 교육수준과 직무성격을 기준으로 세밀화하여 지식의 창조 및 생산과정에 관여하는 직업군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은 지식집약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 창조인재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시점은 창조정부 시기이다. 이때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아이디어와 창조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창조인재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체로 묘사되었다(오은주·김도형, 2014). 이러한 입장에서는 창조인재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경

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오은주·김도형, 2014).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창조인재를 유인·유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조인재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로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역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되었다.

창조인재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크게 ‘창조인재가 종사하는 산업의 입지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창조인재 특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전자를 다루는 연구들은 창조인재가 종사하는 산업들이 지식기반산업들에 속해 생산물 또한 고부가가치 속성을 띠고 있어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높다고 설명한다. 창조인재가 지역 내 존재하는 경우 지식의 생산 및 생산과정의 관여에 따라 지식 및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인 창조경제의 형성과 함께 지식기반산업들이 활성화된다. 또한 창조인재가 종사하는 산업은 유관산업을 비롯한 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넓으며, 간접고용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지역 내 창조인재가 많이 존재할수록 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Lucas, 1988; Glaeser, 1998).

다음으로 창조인재가 갖는 고소득 및 높은 소비수준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비는 소득의 수준만큼 비례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게 된다(홍준현·김민곤, 2014). 특히 창조인재의 경우 단순한 의식주에 대한 소비뿐 아니라 그들이 선호 및 거주하는 지역에 형성되는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선호하는 어메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관련시설들의 추가입지로 인해 간접고용증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형성된 어메니티에 대한 선호로 인한 외부지역으로부터 창조인재 추가적인 유입이 일어나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오은주, 2015; 이훈·오동훈, 2011; 최해욱, 2009; 신성희, 2006).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비수도권의 특정지역들에서 수용하여 지역 내 기업·대학·연구소와 협력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건설정책이다. 이는 기존 대전 제2청사와 같은 단순 정부기관 이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아니라 지식의 창조와 생산에 관여하며 지식집약적인 속성을 갖는 연구개발 성격의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민곤 외, 2017). 즉, 혁신도시정책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편중된 고급인재들을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비수도권의 인적자원을 확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도시정책이 창조인재의 성격을 반영함으로써 전략의 맥락적 통일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국내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창조인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대다수이며, 지역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입증대 및 추가적인 고용증대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이 많다. 한편 새로운 인구계층의 지역 내 유입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내생적 성장이론 측면에서 Castells(1989)가 언급한 인적자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집단들의 형성 및 성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단순한 지역 내 인적 자원의 형성수준이 아닌 지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창조인재 집단이 지역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며, 이들을 집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인재의 선호와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Myrdal 및 Perroix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지역 내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이 바로 혁신도시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혁신도시정책의 핵심은 창조인재로 대표되는 기업·연구소·대학의 인력들이 한곳에 모여 협력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클러스터(Industry Cluster) 및 기업도시와는 다르며,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발전체계에 의한 연구·생산·주거와 같은 단일기능 중심으로 편성된 도시개발방식과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입지한 공공기관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 기능을 포함한 교육연수·산업특화와 관련된 산업들을 중심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Florida(2002) 및 일련의 학자들이 규정한 창조인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한 기관에 의한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기관에 종사하는 창조인재가 지역 내 착근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역으로 가져와야 한다.⁵⁾ 따라서 기관 이전에 의한 고용자들의 이동과 같은 직접고용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 내 정착에 의한 지역 내 간접고용 파급과 같은 다른 산업들과 연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더욱이 혁신도시가 추구하는 혁신 주체 간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 내에서 활발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창조인재의 유입뿐 아니라 그들의 거주 및 정착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할 때, 혁신도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인식을 고려한 지역착근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Friedrich(1988)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참조.

2. 창조인재의 지역착근과 어메니티(Amenities) 중요도·만족도

착근(embeddedness)이란 사람이 기업이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구성원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이경아·오홍철, 2012; 현은지·허성란,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구성원의 이탈을 방지시켜 해당 조직 및 지역에 얼마나 공헌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착근성에 대해 처음으로 주장한 Karl Polanyi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정치적, 문화적 시스템 등 착근된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이론화하지는 않았다(Polanyi, 1944; 임의영, 2013). 이에 대해 다양한 갈래로 연구가 확대·지속되면서, 후속 연구자들은 착근성을 사회적 착근성, 네트워크 착근성, 영역적 착근성 세 가지로 분류하는 등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이재천, 2014).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일차적으로 창조인재들의 지역적 착근(Local embeddedness)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창조인재가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 착근하는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착근성 개념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조직구성원, 기업,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중점적으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기존 착근성 연구와 결이 다르다. 다만 이와 유사하게, 창조인재의 어메니티와 관련한 주거 만족, 주거 이동 및 결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만족은 주거 이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착근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 만족, 주거 이동, 주거 결정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탐색적 접근을 취한다.

주거 이동은 일반적으로 주택소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 이동행위로 정의한다(이중희, 1997). 가구의 소득수준, 가족구성, 주거형태 및 입지에 대한 선호,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 등 내외적 요인 변화에 대한 개별 가구의 적응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천현숙, 2004). 즉, 사회경제적 변화나 선호의 변화, 가구구성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거욕구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주택의 실질적 수준과 요구 수준 간에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주거 이동을 선택하게 된다(이중희, 1997; 천현숙, 2004; 박재선, 2014).⁶⁾

주거 만족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주거지에 형성된 환경에 대해 과거 주거지와 비교 평가한 만족도의 정도이다. 따라서 주택형태와 같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도시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까지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에는 물리적 환경이 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소득 증가 및 취업의 기회와 같은 경제적

6) 본 연구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경험한 창조인재들은 정책에 따른 직장 소재지 이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주거 이동 동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발적 이동이라기보다는 자발적 이동과 비자발적 이동의 중간 개념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천지은, 2017).

동기들에 점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장정호, 1995; Miller et al., 1973; Todaro, 1969; Perloff, 1960).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만족의 정도에 따라 주거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과거의 주거지보다 현재의 주거예상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기대되면 주거를 이동한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 대체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역으로의 착근이 이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에게 어떤 요인이 종합적인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지역착근으로 이어지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주거 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인은 주거이동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결국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거지에 대한 거주자들이 원하는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이에 대해 주거지에서 얻는 만족도에 따라 해당되는 인구들의 추가적인 이동이 결정되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김부성·정재호, 2015; Galter, 1987).

하지만 일반적인 인구이동과 달리, 창조인재들의 경우 구성원들의 특성상 경제적 동기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창조인재의 주거지 이동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들이 “어메니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어메니티란 ‘생활환경에서 있어야 할 것이 적절하게 제공됨에 따라 느껴지는 총체적 쾌적감’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종합쾌적성’으로 번역되고 있다(천지은, 2017; 임형백, 2001). 대표적인 연구로 Florida(2002)의 연구에서는 각종 어메니티가 높을수록,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내 개방성과 창의성의 형성으로 창조적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3T(인재: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 어메니티의 측정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지역으로 창조인재들의 영구적 정착을 전제한 지역착근 인구가 많이 유입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3T로 구성된 어메니티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어메니티가 장소·기후 등을 포함한 복수로서 “쾌적한 환경”의 의미를 가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번역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실제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속성별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Clark et al.(2002)과 Glaeser(2005)는 인적자원 수준이 높은 창조인재의 경우 인적자원의 형성 및 그들의 수요와 관련된 어메니티의 형성수준이 주거 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Harvey et al.(2012)와 Darchen & Tremblay(2010)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근린·문화 어메니티가 창조인재들의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 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파악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공기업 이전 및 공공기관 이전 이후 관련 종사자들의 주거이동 연구들에서 이들의 주거이동 결정에 문화·여가 관련 어메니티들에 대해 느

끼는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이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강병수, 2014; 주미진, 2012). 그리고 문화·여가 측면 뿐 아니라 공간 쾌적성과 관련된 근린 어메니티들의 중요도·만족도 역시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된 이들 계층들의 주거 이동 결정에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김상헌·장원호, 2016; 강병수, 2014; 박미정 외, 2008).

하지만 반드시 언급된 분야의 어메니티만이 창조인재들과 같은 특정한 계층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주거형태의 만족도를 비롯한 전통적인 주거 이동결정 요인들 역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주택형태·가격과 기존대비 높은 수준의 임금이 기대되는 새로운 직장제공 역시 창조계층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Lawton, 2013; Scott, 2010; Darchen & Tremblay, 2010; Hansen & Niedomysl, 2009).

종합하자면, 창조인재의 주거지 결정요인에 어메니티별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창조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해서는 근린 및 환경 어메니티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연구들에서 언급된 어메니티 요소는 교통, 안전, 교육기관, 사회복지와 같은 전통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거비용 및 문화시설과 같은 새로운 측면들도 존재하였다(주미진·서원석, 2017; 오은주, 2015).

한편 창조인재의 주거지 이동요인에 대하여 특정 어메니티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들에 따르면 창조인재의 주거지 이동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선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Lawton et al, 2013). 대표적으로 창조인재 중 젊은 세대들은 도심 내 주거입지에 관심이 많은 반면 장년층은 도시외곽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았다(Prashker et al., 2008). 자녀의 유무를 비롯한 자녀세대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어메니티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문화구역과 문화시설이 존재하고 저렴한 생활비용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심을 선호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경우는 도시 외곽의 근린과 교육의 어메니티 수준이 높은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고 보았다(주미진, 2017; 오은주, 2015; Grant et al. 2014; Martin-Berlot et al, 2010; Oden, Kang & Kwon, 2007; Markusen & schrock, 2006).

위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창조인재의 주거이동 및 만족과 어메니티와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며, 기존 주거이동 결정요인 대비 어메니티별 중요도·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창조인재의 지역착근과 관련하여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기존 주거 만족 및 이동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경험한 창조인재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집단의 구분도 전통적

이론에 따른 기준을 활용하는 데에 그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이동한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에 적합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석기준에 더해 본 연구대상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분석기준을 추가한다. 즉, 분석기준을 도시유형(광역시/비광역시) 간 비교, 동일 도시유형 내의 이주유형(동반/비동반이주) 간 비교, 가족유형(청소년 자녀 유/무) 간 비교를 통해 각각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 연구가설

가설 1: 도시유형(광역시/비광역시)에 따라 각 지역 어메니티에 대해 창조인재가 느끼는 중요도·만족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 2: 같은 도시유형 내에서, 이주유형(동반/비동반 이주)에 따라 각 지역 어메니티에 대해 창조인재가 느끼는 중요도·만족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 3: 같은 도시유형 내에서, 가족유형(청소년자녀 유/무)에 따라 각 지역 어메니티에 대해 창조인재가 느끼는 중요도·만족도가 다를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창조인재가 느끼는 분야별 어메니티 인식과 개선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내 거주하는 창조인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의 정확성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PC를 비롯한 모바일에서도 온라인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응답 적격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설문참여에 따른 상품증정으로 응답내용의 성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의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약 8개월로 긴 기간을 소요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창조인재이면서 동시에 연구 대상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시간 소요에 기인한다.⁷⁾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착근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족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살펴본다는 점에서 미혼자의 응답은 제외하였다. 이 중 무응답이나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고 총 381부의 유효설문지를 활용하였다.

7) 여기서 연구 대상 적격자는 응답시점에서 이미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해당 기관의 연구직 또는 공무원으로서, Florida(2002)의 정의와 같이 지식의 생산과 보급과정에 참여하는 자로 선별하였다. 즉, 핵심적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를 창조성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분류하는 관점을 따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종사자들 중 직종상 관리자와 전문가 집단을 창조인재로 보았다.

2. 변수정의

‘어메니티’ 인식은 창조인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느끼는 종합쾌적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의 욕구와 선호 측면에서 만족도와 중요도 측면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분야별 어메니티를 자녀교육, 문화소비, 정주환경, 자연환경, 보건의료의 범주로 구분하였다.⁸⁾ 여기서 자녀교육 어메니티는 공공·민간 보육시설, 학교(공교육), 학원(사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성인이 아닌 다양한 학령의 자녀에게 투입할 수 있는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문화소비 어메니티는 쇼핑시설, 문화시설, 유원시설 등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취미를 즐기며 금전적으로 소비하는 데 관련한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정주환경 어메니티는 주택가격, 방법환경, 대중교통 편의성, 자차이동 편의성, 도보이용 편의성, 인구밀도 등 ‘주거 및 주택, 생활권 내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자연환경 어메니티는 대기의 질, 상수도의 수질, 기후의 질, 근린공원과 같은 인공환경 및 야외자연환경 등 ‘지역적으로 사람과 다른 유기체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환경적 속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어메니티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및 생활체육시설, 건강증진 관련 행사 등 ‘생활건강을 증진하고 질환을 치료하여 보건의료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시설 및 입지, 상태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창조인재 집단구분은 도시유형, 이주유형, 가족유형이다. 먼저 ‘도시유형’은 여러 혁신도시를 광역시와 비광역시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도시의 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창조인재가 다른 인식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도시유형에 따라 중요도와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격차를 느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창조인재가 추구하는 어메니티는 비광역시보다 광역시에 더 잘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른 비교는 도시유형 간 비교가 아닌 도시유형 내 비교를 시행한다.

‘이주유형’은 주거이동 시 창조인재가 단독으로 이주하였는지, 가족과 동반하여 이주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동반이주는 사실 상 지역착근과 크게 관련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반이주집단과 비동반이주집단을 구분하여 이들 간 어메니티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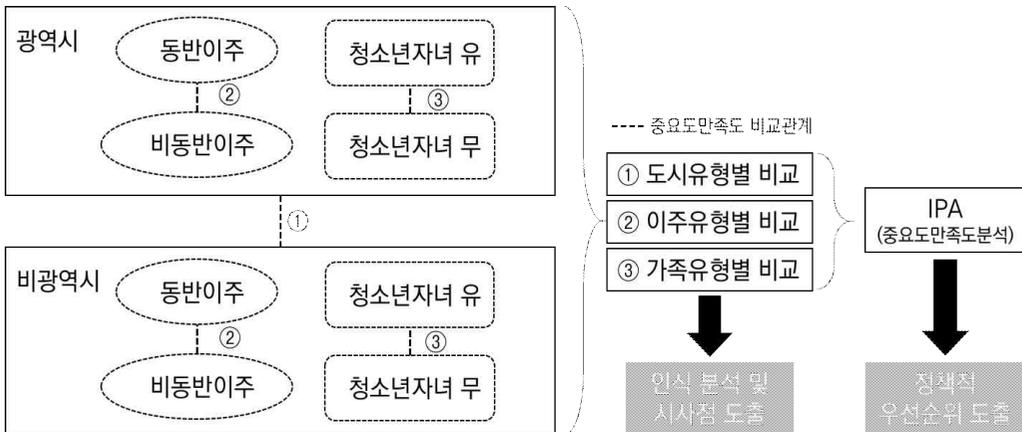
8) 어메니티 범주의 구분은 천지은(2017)을 참조하였으며, 이는 Arora et al.(2002), Krupka(2007), Deller et al.(2001), Martin-Brelot et al.(2010), Clark(2002), 강병수 외(2007), 강병수(2014), 최화식(2002), 배태영·이재호(2005), 이종열(2008) 등을 종합하여 한국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가족유형’은 창조인재의 가족 내에 청소년 자녀의 유무로 판별한다. 창조인재의 생애주기는 그들의 주거이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경우 청소년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은 주거이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본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자녀교육에 관한 미진한 어메니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창조인재로 하여금 자녀를 수도권에 거주시키기 위해 비동반이주 또는 통근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국토연구원, 2015; 이종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이들의 어메니티 인식 차이를 분석한다.

3. 분석틀

본 연구는 창조인재의 주거지 이동과 관한 Hracs & Stolarick(2014) 및 오은주(2015)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다. 이들은 주거지 결정관련 의사결정을 ① 중요도에 따른 기대감 형성, ② 기대감을 동반한 주거지 이전에 따른 중요도 및 만족감의 차별적인 형성 등으로 구성한다. 즉, 창조인재들이 가족 동반이주 관련 주거지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특정요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주하게 되며, 현재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에 착안, 이들의 어메니티 중요도와 만족도를 집단별로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설문은 어메니티의 경우 각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 요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Likert 5점 척도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어메니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중요도·만족도를 4분면으로 교차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한다. IPA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4분면에 대하여 각각 우선시정 필요(Concentrate Here), 지속적 노력 필요(Keep Up the Good Work), 저 우선순위(Low Priority), 과잉노력 지양(Possible Overkill)에 해당하는 항목을 실행적 자방법에 따라 표시한다(Martilla & James, 1977; 이시영 외, 2013; 이용학 외, 2016). 어메니티 개념들 중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분석

설문에 응답한 창조인재들의 개인별 특성들을 살펴보면, 성별, 자녀, 직급, 소득 등 각 기준의 비율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하지만 학력, 이주형태에 있어서는 도시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에 있어 광역시 내 혁신도시들의 경우는 박사 이상이 113명(69.3%)으로 비광역시 혁신도시의 박사 이상 60명(27.5%)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유형에 있어서는 비광역시의 경우 124명(56.9%)이 가족을 제외한 단독 이주를 선택했지만, 광역시 내 혁신도시의 경우는 38명(23.3%)이 가족을 제외한 단독 이주를 선택하였다. 반면 자녀를 포함한 일부 및 전체이주에 있어서 비광역시 혁신도시는 94명(43.1%)이 선택한 반면, 광역시 내 혁신도시의 경우는 125명(76.7%)이 선택하는 등 차이를 나타냈다.

〈표 2〉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비광역시		광역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160	73.4	107	65.6
	남자	58	26.6	56	34.4
자녀	자녀 없음	12	4.46	8	3.96
	영유아	44	16.36	23	11.39
	유치원생	30	11.15	20	9.90
	초등학생	87	32.34	43	21.29
	중고등학생	30	11.15	86	42.57

	대학생이상	66	24.54	22	10.89
직급	원급	59	27.1	45	27.6
	선임급	72	33.0	61	37.4
	책임급	69	31.7	55	33.7
	그 외 직급	17	7.8	1	0.6
	무응답	1	0.5	1	0.6
학력	고졸이하	12	5.5	-	-
	전문대졸	3	1.4	-	-
	대졸(4년제 이상)	56	25.7	17	10.4
	석사(과정·수료 포함)	87	39.9	33	20.2
	박사(과정·수료 포함)	60	27.5	113	69.3
소득	200만원 미만	11	5.0	-	-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1	0.5	4	2.5
	3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1	32.6	39	23.9
	5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81	37.2	68	41.7
	750만원 이상	54	24.8	52	31.9
이주유형	비동반이주	124	56.9	38	23.3
	동반이주	94	43.1	125	76.7
	합계	218	100.0	163	100

※ 비동반이주: 단독 이주 / 동반이주: 자녀를 포함한 일부 및 전체 이주

※ 자녀수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자녀수의 합이 총 합계인 218, 163을 각각 초과함

2. 집단별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 분석

1) 도시유형에 따른 차이

창조인재가 이주한 도시유형에 따라 어메니티별 중요도·만족도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창조인재가 이전한 도시가 비광역시인가 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의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창조인재들이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창조인재들에 비해 모든 분야의 어메니티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더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만족도의 경우 비광역시와 광역시 간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광역시와 광역시 간 기존 어메니티의 차이와 더불어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정책이 균형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자연환경 어메니티에 대해서도 광역시가 비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자연환경 어메니티에는 대기의 질, 상수도의 수질, 기후의 질, 근린공원

과 같은 인공환경 및 야외 자연환경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즉 개발이 덜 이루어져 환경이 보다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비광역시와 자연환경 어메니티 측면에서 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창조인재에게 쾌적감을 주는 자연환경 어메니티는 단순히 보존된 녹지 등 자연 그대로의 환경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 근린공원 조성 등 같은 인공적인 자연환경 등도 그들의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광역시와 광역시 간 중요도 차이는 문화소비 > 자녀교육 > 자연환경 > 보건의료 > 정주환경 순이었다. 즉, 광역시로 이주한 창조인재는 비광역시로 간 창조인재보다 쇼핑시설, 문화시설, 유원시설 등 문화컨텐츠를 향유하고 취미를 즐기는 것과,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인식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족도 차이는 문화소비 > 보건의료 > 자녀교육 > 자연환경 > 정주환경 순이었다. 즉, 광역시로 이주한 창조인재는 비광역시로 간 창조인재보다 문화 컨텐츠의 향유와 의료시설 및 보건활동 측면에서 보다 더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도시유형별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구분		중요도				만족도			
		평균	SD	F	P	평균	SD	F	P
자녀 교육	비광역시	4.046	0.550	27.871	0.000	2.184	0.862	84.832	0.000
	광역시	4.361	0.609			3.175	1.236		
문화 소비	비광역시	3.759	0.551	51.925	0.000	1.801	0.612	230.223	0.000
	광역시	4.210	0.668			3.234	1.202		
정주 환경	비광역시	4.193	0.430	9.551	0.002	2.853	0.819	105.223	0.000
	광역시	4.340	0.493			3.719	0.810		
자연 환경	비광역시	4.201	0.545	24.102	0.000	3.296	1.040	82.189	0.000
	광역시	4.468	0.499			4.185	0.804		
보건 의료	비광역시	4.006	0.501	10.142	0.002	2.035	0.575	138.594	0.000
	광역시	4.180	0.559			3.112	1.176		

※ 비광역시(N=218), 광역시(N=163)

문제는 중요도 대비 만족도의 점수 차이이다. 도시유형별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의 차이는 각 도시유형 내 형성된 어메니티 수준에 기인한다. 그런데 중요도는 대부분 4점대로 나타난 데 비해, 만족도 대부분 평균이 2~3점대 또는 그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유형과 무관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광역시의 어메니티 만족도는 자녀교육 2.184, 문화소비 1.801, 정주환경 2.853, 자연환경 3.296, 보건의료 2.035로 모두 아주 낮은 수준이다. 광역시는 대부분 3점대였으며, 자연환경 어메니티에 대한 만족도만이

4점 이상(4.185)을 나타냈다. 이는 전반적인 어메니티 개선의 필요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물론 어메니티의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 도시가 존재하던 광역시와 달리 비광역시에서 보인 이런 특성은 해당지역에 이전한 창조인재들이 원하는 어메니티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이주유형에 따른 차이

이전지역으로의 이주유형은 ‘단독 이주(비동반이주)’ 또는 ‘가족 일부가 동반 또는 전체 동반하여 이주(동반이주)’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이주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시유형 내에서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먼저 중요도 측면에서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부분은 비광역시에서 자녀교육($p < .001$), 정주환경($p < .005$), 광역시에서 정주환경($p < .005$)이었다. 자녀교육 어메니티에 대하여는 비광역시로 이주한 동반이주집단이 비동반이주집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정주환경 어메니티에 대해서는 도시유형과 관계없이 이주한 동반이주집단이 비동반이주집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만족도 측면에서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부분은 비광역시에서 자녀교육($p < .001$), 광역시에서 전 분야($p < .001$)에 해당하였다. 즉 자녀교육 어메니티에 대하여는 비광역시로 이주한 동반이주집단이 비동반이주집단보다 만족하고 있었고⁹⁾, 광역시로 이주한 동반이주집단은 비동반이주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었다.

광역시에서 동반이주한 경우가 모든 측면에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동반이주한 경우보다 자녀를 동반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과의 문화소비, 정주환경, 자연환경 및 보건환경에 대한 어메니티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기회가 더 많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말하면 비동반이주한 경우에 대한 어메니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비동반이주한 창조인재가 지역착근에 더욱 어려움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착근에 어려움을 가지는 인재는 비동반이주 문제 외에도 지역 외 인재유출 및 지방근무 회피라는 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국토연구원, 2015). 종합하자면,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서도 다른 어메니티 만족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집단이 가지는 특성이 어메니티 만족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

9) 단, 비동반이주집단의 경우 자녀 없이 단독으로 왔다는 점에서 자녀교육 어메니티에 대한 만족의 높고 낮음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이주유형별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구분			중요도				만족도			
			평균	SD	F	P	평균	SD	F	P
비광역시	자녀 교육	비동반	3.893	0.489	24.765	0.000	1.957	0.548	21.868	0.000
		동반	4.248	0.563			2.484	1.085		
	문화 소비	비동반	3.748	0.527	0.105	0.747	1.777	0.618	0.448	0.504
		동반	3.773	0.585			1.833	0.605		
	정주 환경	비동반	4.131	0.490	6.212	0.013	2.847	0.844	0.017	0.897
		동반	4.275	0.320			2.861	0.789		
	자연 환경	비동반	4.158	0.591	1.790	0.182	3.245	0.957	0.697	0.405
		동반	4.257	0.476			3.364	1.142		
	보건 의료	비동반	3.961	0.473	2.354	0.126	2.030	0.527	0.023	0.879
		동반	4.066	0.531			2.042	0.636		
광역시	자녀 교육	비동반	4.219	0.584	2.706	0.102	2.425	0.943	20.407	0.000
		동반	4.404	0.612			3.403	1.227		
	문화 소비	비동반	4.053	0.562	2.765	0.098	2.241	0.841	42.479	0.000
		동반	4.257	0.692			3.536	1.132		
	정주 환경	비동반	4.184	0.577	5.032	0.026	3.114	0.605	33.128	0.000
		동반	4.387	0.457			3.903	0.775		
	자연 환경	비동반	4.342	0.508	3.209	0.075	3.776	0.859	13.805	0.000
		동반	4.507	0.492			4.309	0.747		
	보건 의료	비동반	4.158	0.465	0.076	0.783	2.070	0.829	50.865	0.000
		동반	4.187	0.586			3.429	1.081		

※ 비광역시(N=218), 광역시(N=163)

※ 비광역시 내 비동반이주(N=124), 동반이주(N=94) / 광역시 내 비동반이주(N=38), 동반이주(N=125)

3)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

기존의 주거이동 연구들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가 주거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중요한 변수로 다루었다(천현숙, 2004). 즉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생활양식과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열이 특징적이며, 이를 고려할 때 창조인재의 가족유형, 즉 학령인구의 자녀 유무에 따라 어메니티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방으로의 주거이전을 꺼리는 요인으로 자녀와 관련하여 교육여건의 부족, 주거 환경문제 등이 지목되고 있다

는 점 역시 고려한 것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국토연구원, 2015; 이종수, 2008).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 중 자녀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교육 분야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지역차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정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5> 참조).

먼저 비광역시를 살펴보면, 중요도와 만족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요도에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젊은 창조인재들의 경우도 향후의 가족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녀교육 어메니티에 대해 자녀가 있는 창조인재집단과 유사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볼 때,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이 아닌 집단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진 항목은 자녀교육, 정주환경, 보건의료 어메니티였다. 만족도의 경우, 집단유형별 차이 없이 고르게 낮은 것은 지역의 어메니티가 창조인재 집단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시의 경우, 어메니티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문화소비, 정주환경 어메니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광역시에서 주요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었던 자녀교육 어메니티의 경우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이 낮은 수준이었고, 대신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이 문화소비 어메니티와 정주환경 어메니티에 대해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이주유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단의 특성이 어메니티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특히 문화소비 어메니티와 정주환경 어메니티의 경우 쇼핑 및 문화시설, 주택 및 방법환경 등 도시 기반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들로, 충분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비광역시와 달리 광역시의 경우 청소년 자녀 동반한 경우가 만족도가 높고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집단의 어메니티 수요를 보다 충족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광역시로의 청소년 자녀 동반 이주는 완전이주를 전제한 지역차근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에 비해 지역차근 측면에서 도시 내 어메니티 조성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청소년 자녀와 같은 특정한 수요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가족유형별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구분			중요도				만족도			
			평균	SD	F	P	평균	SD	F	P
비광역시	자녀	청소년자녀X	4.041	0.526	0.048	0.827	2.180	0.915	0.014	0.906
		청소년자녀O	4.058	0.608			2.195	0.729		
	문화	청소년자녀X	3.769	0.541	0.166	0.684	1.799	0.620	0.009	0.924
		청소년자녀O	3.736	0.579			1.807	0.597		
	정주	청소년자녀X	4.189	0.430	0.045	0.833	2.812	0.870	1.325	0.251
		청소년자녀O	4.202	0.433			2.951	0.680		
	자연	청소년자녀X	4.212	0.552	0.208	0.649	3.236	1.084	1.750	0.187
		청소년자녀O	4.175	0.534			3.439	0.921		
	보건	청소년자녀X	4.028	0.495	0.917	0.339	2.048	0.595	0.252	0.617
		청소년자녀O	3.957	0.514			2.005	0.528		
광역시	자녀	청소년자녀X	4.379	0.541	0.107	0.744	3.039	1.251	1.457	0.229
		청소년자녀O	4.347	0.658			3.275	1.221		
	문화	청소년자녀X	4.159	0.680	0.674	0.413	3.000	1.209	4.643	0.033
		청소년자녀O	4.246	0.660			3.406	1.174		
	정주	청소년자녀X	4.297	0.530	0.882	0.349	3.534	0.808	6.456	0.012
		청소년자녀O	4.371	0.465			3.855	0.788		
	자연	청소년자녀X	4.459	0.514	0.042	0.838	4.053	0.895	3.263	0.073
		청소년자녀O	4.475	0.491			4.282	0.720		
	보건	청소년자녀X	4.225	0.517	0.765	0.383	2.952	1.139	2.251	0.135
		청소년자녀O	4.147	0.589			3.230	1.196		

※ 비광역시(N=218), 광역시(N=163)

※ 비광역시 내 청소년자녀가 없는 가정(N=153),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정(N=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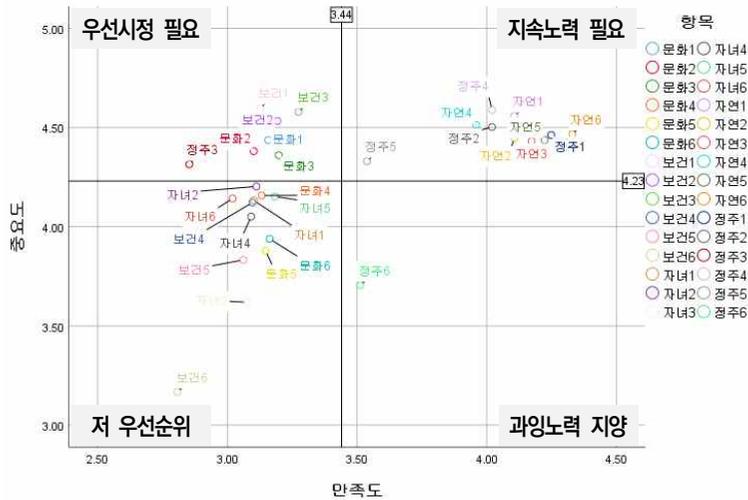
※ 광역시 내 청소년자녀가 없는 가정(N=69),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정(N=94)

3. IPA 분석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앞선 분석에서는 집단 간 구분에 따른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응답자 중 미혼자를 제외하였으나, IPA에서는 창조인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위해 미혼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광역시와 비광역시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 점을 고려하여, 도시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 자료는 총 491부였으며, 이 중 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가 197명, 비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가 294명이었다.

1) 광역시 내 혁신도시

〈그림 2〉 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인식에 대한 IPA



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를 바탕으로 IPA를 시행한 결과, 우선시정이 필요한 영역은 종합병원·일반병원·의원과 같은 보건의료 어메니티, 쇼핑시설 및 일반문화 시설, 외식시설 등 문화소비 어메니티,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성 등 정주환경 어메니티였다. 또한 지속노력이 필요한 영역은 주택가격·방범환경·차차 및 도보 이용 시 편의성 등 정주환경 어메니티, 대기·상수도·기후의 질, 근린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산·들·강과 같은 야외환경, 소음이 적은 정온한 환경 등 자연환경 어메니티였다.

〈표 6〉 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IPA 분석결과

IPA구분	어메니티명	관련 지표 및 내용
우선시정필요	보건의료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문화소비	백화점 등 쇼핑시설, 영화관 등 일반문화시설, 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정주환경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성
지속노력 필요	정주환경	주택가격, 방범환경, 차차 이용 시 편의성, 도보 이용 시 편의성
	자연환경	대기의 질, 상수도의 수질, 기후의 질, 근린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산·들·강과 같은 야외환경, 소음이 적은 정온한 환경
저 우선순위	자녀교육	보육시설(공립·사립), 초·중·고등교육(공교육·사교육), 지역 대학, 사교육 업체 선택 폭의 다양성
	문화소비	동물원 등 유원시설, 미술관 등 고급문화시설, 스포츠 관람시설
	보건의료	헬스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 자전거도로·등산로 등 실외 생활체육시설, 마라톤 등 건강증진 관련 행사개최
과잉노력 지양	정주환경	도시의 인구밀도

2) 비광역시 내 혁신도시

〈그림 3〉 비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인식에 대한 IPA



비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를 바탕으로 IPA를 시행한 결과, 우선시정이 필요한 영역은 광역시와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분야에서 같았으나, 추가로 공립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 공교육과 같은 자녀교육 어메니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노력이 필요한 영역은 광역시의 정주환경·자연환경 어메니티 분야와 같았다. 비광역시에서 특히 공립교육에 대한 우선시정 욕구가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며, 광역시에 비해 우선시정 영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비광역시 내 혁신도시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IPA 분석결과

IPA구분	어메니티명	관련 지표 및 내용
우선시정 필요	보건의료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문화소비	백화점 등 쇼핑시설, 영화관 등 일반문화시설
	정주환경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성
	자녀교육	보육시설(공립), 초·중·고등교육(공교육)
지속노력 필요	정주환경	주택가격, 방범환경, 자가 이용 시 편의성, 도보 이용 시 편의성
	자연환경	대기의 질, 상수도의 수질, 근린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산·들·강과 같은 야외환경, 소음이 적은 정온한 환경
저 우선순위	자녀교육	지역 대학, 보육시설(사립), 초·중·고등교육(사교육), 사교육 업체 선택 폭의 다양성
	문화소비	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동물원 등 유원시설, 스포츠 관람시설, 미술관 등 고급문화시설
	보건의료	헬스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 자전거도로·등산로 등 실외 생활체육시설
과잉노력 지양	자연환경	기후의 질
	정주환경	도시의 인구밀도
	보건의료	마라톤 등 건강증진 관련 행사개최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조인재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들의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를 중심으로 도시유형별, 이주유형별, 가족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 및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인재가 속한 도시유형이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의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광역시 집단이 비광역시 집단보다 모든 측면의 어메니티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더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중요도 대비 만족도 차이에서 중요도는 4점대, 만족도는 2~3점대에 그쳐 대부분 욕구에 비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유형과 무관하게 어메니티 수준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비광역시에서 더욱 두드러져 전반적인 어메니티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조인재의 이주유형이 가족과의 동반이주인가, 비동반이주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비광역시에서 자녀교육·정주환경 어메니티 중요도, 자녀교육 만족도였다. 또한 광역시에서는 정주환경 어메니티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측면의 어메니티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동일 유형 내에서도 동반이주여부에 따라 다른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가 나타나는 점은 그 집단이 가지는 특성이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부분은 만족도 측면에서 광역시로 동반이주한 경우가 비동반이주한 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그만큼 광역시가 자녀를 동반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보면 비동반이주 집단에 대한 어메니티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들의 지역착근이 보다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재유출 및 지방근무 회피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로 된다.

셋째, 창조인재의 가족유형이 청소년 자녀를 포함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광역시에서 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만족도였으며, 비광역시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따라 자녀교육 어메니티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광역시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이 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에 대해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이들의 완전이주를 전제한 지역착근 확률이 높을 것을 추론케하나, 비광역시의 경우 어메니티 조성이 여전히 미흡하여 청소년 자녀와 같은 특정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유형별 IPA 결과, 광역시의 경우 우선시정이 필요한 영역은 종합병원·일반병원·의원과 같은 보건의료 어메니티, 쇼핑시설 및 일반문화시설, 외식시설 등 문화소비 어메니티,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성 등 정주환경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광역시의 경우, 우선시정 필요영역이 광역시와 거의 같았으나 추가로 공립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 공교육과 같은 자녀교육 어메니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광역지에서 공립교육에 대한 우선시정 욕구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며, 광역시에 비해 보다 많은 우선시정 영역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한 분석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 창조인재들의 유인·유지를 위한 정책 수정의 필요성 제기이다. 현재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입지개발정책들에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선호를 고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해 매우 낮아 욕구와 만족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창조인재 유인·유지정책이 창조인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로 된다.

현재 지방이전 지원정책은 크게 주택문제 해결¹⁰⁾,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¹¹⁾,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¹²⁾, 경제적 직접지원¹³⁾ 등 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창조인재들의 IPA 결과에서 우선시정영역으로 나타난 보건의료 어메니티는 시장원리와 맞물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소비 어메니티는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주환경 어메니티는 일부 진입도로건설에만 지원이 투여되어 이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편의성은 미진한 상태이다(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자녀교육 어메니티의 경우에도 비광역시가 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교육 확충 중 학교신설은 '14년 이후 추진현황 파악조차 미진한 상황이며, 영유아 보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듯,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성패에 대한 지적 역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서울경제, 2018). 즉, 이를 종합하면 창조인재의 어메니티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정책내

10) 주택 우선분양, 임대주택 우선임주, 주택자금 장기저리지원, 주택분양택지 우선공급, 독신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지원, 거주이전을 위한 주택중복소유기간 연장,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11) 우수학교 적극유치, 다양한 학교운영모형 시범적용, 영재교육기관 우선설치 지원, 기존학교 교육여건개선 우선 지원,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권장, 이천기관 자녀의 전입학 지원, 학교설립 및 교원수급계획 조기마련
 12)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기반설치비(진입도로건설) 국고지원, 기반설치비(상수도설치) 국고지원
 13) 지방이전수당 한시적 지급, 이사비용 지급, 조기 희망퇴직·명예퇴직 허용, 이직배우자 실업급여 지급, 배우자 직장알선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지원

용과 수요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인재를 유입·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필요로 되며, 이를 통해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유형, 즉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도시유형에 따라 모든 측면의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비광역시의 어메니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들 간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을 가지는지 등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필요로 한다.

셋째, 창조인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어메니티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주지한 지역차근 개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 거주하더라도 이주유형·가족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어메니티 인식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인과관계를 상정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차이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넷째, 창조인재가 필요로 하는 어메니티는 단순히 정부정책으로만 형성될 수 없으며, 문화소비 어메니티와 같은 사적 영역의 어메니티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로 된다. 예를 들어 광역시와 비광역시 모두에서 우선시정영역으로 꼽힌 백화점 등 쇼핑시설, 영화관 등 일반문화시설, 레스토랑 등 외식시설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어메니티가 아니다. 이는 인위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시장의 논리에 따라 형성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간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 호흡에서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편,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성장을 이끄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인적자원의 성장을 통한 방법은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성장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창조성을 갖는 인적자원인 창조인재들의 유입과 지역차근을 위한 환경조성은 지역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창조인재들의 지역차근을 개선하기 위한 어메니티 인식을 연구함으로써, 경제성장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창조인재 유입·유지 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창조인재의 어메니티와 지역차근 간 관련성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기존 논의에서 보다 확대된 범주를 통해 현상을 검증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인재의 이동요인을 인과관계를 통해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창조인재가 아닌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메니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메니티 구성 요인들이 하나

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리적 보완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는 보다 구체화된 변수 설정과 모형을 통해 지역착근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구조를 탐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 강병수. (2014). 지역어메니티와 주거이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7(1), 193-214.
- 교육인적자원부.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교육수요 조사결과 보고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
- 국토연구원. (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 김민곤·박지형·송용찬.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 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
- 김부성·정재호. (2015). 세종시로의 주거이동 및 주거만족도 요인 분석. 「부동산연구」, 25(4), 21-32.
- 김상현·장원호. (2016). 도시 씬(urban scene)과 지역발전. 「지역사회학」, 17, 5-28.
- 김윤서·김종진. (20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4(4), 73-90.
- 남기범. (2006). 해외 혁신도시 유사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 29-38.
- 박미정·정남수·장민원·이정재. (2008). 자연어메니티가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촌 계획」, 14(4), 1-9.
- 박재선. (2014).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이전선택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도시학과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
- 서울경제. (2018). “지방이전 효과 검증도 안됐는데...” 거론 공공기관들 좌불안석. (게시일: 2019.09.05.)
- 신성희. (2006). 창조계급 및 창조도시들의 분포특성과 창조적 도시조성 방안의 시사점-미국과 한국 도시들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5, 80-98.
- 엄명용. (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 아빠”. 「가족과 가족치료」, 10, 25-43.
- 오은주. (2015). 지식기반산업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0(6), 225-240.
- 오은주·김도형. (2014).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516, 1-196.
- 이경아·오홍철. (2012). 호텔종사원의 직무착근도가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구조모형에 관한 연구-직무만족, 조직몰입, 경력몰입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5, 37-61.
- 이보영. (2011). 혁신도시와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1), 1-18.
- 이시영·이희정·황지욱·임병호. (2013). IPA분석을 활용한 대전시 주거환경 요소별 만족도.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25(5), 187-205.

- 이용학·강은지·이대균·김용근. (2016). 이용자의 생태하천 어메니티 평가에 따른 관리전략 수립.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2), 70-72.
- 이재천. (2014). 지방은행의 지역 착근성 연구: 대구은행을 사례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 (200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중희. (1997). 주택경제론. 서울: 박영사.
- 이훈·오동훈. (2011). 플로리다 창조계급론의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임금구조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17(3), 121-134.
- 임병호·이시영·이건호. (2013). AHP 기법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요소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1), 217-232.
- 임의영. (2014). Karl Polanyi의 내포(embeddedness) 개념과 공공성. 「한국행정연구」, 23(3), 1-30.
- 임형백. (2001). 어메니티의 개념, 기원과 역사,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2), 191-199.
- 장정호. (1995). 한국의 지역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미진. (2017). 창조계층의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376-387.
- 주미진. (2012). Are Amenities Important for the Migration of Highly Educated Workers? (어메니티와 인적자본의 이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박사학위논문.
- 주미진·서원석. (2017). 대도시 인적자원의 창조성에 따른 주거환경 특성연구. 「주택도시연구」, 7(1), 121-136.
- 천지은. (2017). 어메니티 인식이 가족동반이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어메니티 중요도 만족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현숙. (2004).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이동 동기과 유형. 「경기논단」, 6(1), 91-111.
- 최해욱. (2009). 한국 도시의 인력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춘계산학협동 학술대회
- 현은지·허성란. (2012). 여행사직원의 직무탈진이 직무착근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52, 383-404.
- 홍준현·김민곤. (2014). 도심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도시 내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8(2), 479-505.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Basil Blackwell.
- Clark, T. N., Lloyd, R., Wong, K. K., & Jain, P. (2002). Amenities drive urban growth. Journal of

- urban affairs, 24(5), 493–515.
- Darchen, S., & Tremblay, D. G. (2010). What attracts and retains knowledge workers/students: The quality of place or career opportunities? The cases of Montreal and Ottawa. *Cities*, 27(4), 225–233.
- Ehrenreich, B., & Ehrenreich, J. (1979). The professional–managerial class. *Between labor and capital*, 5, 45.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Galster, G. C. (1987). *Homeowners and neighborhood reinvestment*. Duke University Press.
- Glaeser, E. L. (2005). *Smart Growth: Education, skilled workers and the future of cold-weather cities*. Policy Briefs, Harvard Universit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 Glaeser, E. L. (1998). Are cities dy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2), 139–160.
- Grant, J., Hagget, J., & Morton, J. (2014). Those hermit artists: Musical talent on the edge of the continent. *Seeking Talent for Creative Cities: The Social Dynamics of Innovation*, 119–137.
- Harvey, D. C., Hawkins, H., & Thomas, N. J. (2012). Thinking creative clusters beyond the city: People, places and networks. *Geoforum*, 43(3), 529–539.
- Hansen, H. K., & Nedomysl, T. (2008). Migration of the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Swede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9(2), 191–206.
- Gracs, B. J., & Stolarick, K. (2014). Satisfaction guaranteed? Individual preferences, experiences and mobility. *Seeking talent for creative cities: The social dynamics of economic innovation*, 99–118.
- Lawton, P., Murphy, E., & Redmond, D. (2013). Residential preferences of the ‘creative class’?. *Cities*, 31, 47–56.
- Lucas Jr, R. 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arkusen, A., & Schrock, G. (2006). The distinctive city: divergent patterns in growth, hierarchy and specialisation. *Urban studies*, 43(8), 1301–1323.
- Martin-Brelot, H., Grossetti, M., Eckert, D., Gritsai, O., & Kovacs, Z. (2010). The spatial mobility of the ‘creative class’: A European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4), 854-870.

- Miller, E. K., Poggio, A. J., & Burke, G. J. (1973). An integro-differential equation technique for the time-domain analysis of thin wire structures. I. The numerical method.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12(1), 24-48.
- Oden, M., Kang, B. S., & Kwon, Y. S. (2007). The role of local amenities in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regions. KRIHS Research Report 2007-44.
- Perloff, H. S., EE, L., & RF, K. (1960). Regions,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Regions,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 Polanyi, K., & MacIver, R. M.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 Prashker, J., Shiftan, Y., & Hershkovitch-Sarusi, P. (2008). Residential choice location, gender and the commute trip to work in Tel Aviv.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6(5), 332-341.
- Reich, R. B. (1992).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Vintage.
- Scott, A. J. (2010). Jobs or amenities? Destination choices of migrant engineers in the USA. *Papers in Regional Science*, 89(1), 43-63.
- Todaro, M.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천지은(千智恩):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어머니 인식이 가족동반 이주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7), 현재 동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문제, 지역인구, 공공갈등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연구(2018)”,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 비교를 통한 갈등 원인 분석(2018)”, “기술규제의 내재적 특성과 정책과정 현상 분석(2018)”,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구룡마을 개발정책 형성과정 분석(2017)” 등이 있다(cheon@cau.ac.kr).

김민곤(金民坤):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경제적 의존도와 지역격차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11), 동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역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연구(2018)”,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 비교를 통한 갈등 원인 분석(2018)”,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17)”, “지역의존도가 특정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7)” 등이 있다(noblenight@cau.ac.kr).

박정민(朴正珉): 충남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윤리적 리더십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4), 동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조직, 행정윤리, 행정철학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연구(2018)”, “차별적 경험과 성역할 태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2018)”, “Q방법론을 활용한 공공성 인식 유형 연구(2018)”, “공직자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2017)” 등이 있다(noverthere@gmail.com).

이용규(李容圭):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Seton Hall University 교수(조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통신정책, 규제정책, 재정정책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기술규제의 내재적 특성과 정책과정 현상 분석(2018)”, “리더십의 유형이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8)”, “주요 10개 국가의 국가표준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적 연구(2017)” 등이 있다(james@cau.ac.kr).

A Study on Amenities for the Local Embeddedness of Creative Class: Focused on th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d to the Innovation city

Jieun Cheon, Mingon Kim, Jungmin Park & YongKyu Lee

This study examined amenity awareness in term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ocalization of creative professionals affiliated with public institutions that moved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local innovative city due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By classifying them into urban, migrant, and family groups,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conducte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 prioritize the amenity strategy to improve the localization of creative tal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urban type belonging to the creative talent differed in all aspects depending on whether it was a metropolitan city or a non-metropolitan city. However,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very low and it was difficult to accommodate, and this characteristic was more prominent in non-metropolitan cities, and it was urgent to improve the amenity. Second, even within the same urban typ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amenity according to the type of migration and family type of creative talent. This means that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talent may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ir amenity awareness. The case of accompanying a metropolitan city is more satisfying in all respects than the non-resident group, suggesting that the metropolitan city is relatively well reflecting the amenity demand of the creative talents who have moved with the family, but experiencing insufficient amenity in the non-resident group. In addition, groups with youth children in metropolitan cities were similar to those with accompanying migrants. Third, it is urgent to improve the city by being a priority municipal area according to IPA by city type. It is a health care, culture consumption, settlement environment, child education amenity in metropolitan city, and non-metropolitan city.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by pointing out the mismatch between policy and dem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nd presenting policy considerations.

Key words: Creative class, Amenities, Innovative city